



비 그친 농촌 풍경 가을 장마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인 25일 오후. 화순군 이양면에서 한 농부가 논을 살펴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오락가락 비...알고 보니 '가을장마'

광주·전남, 8월 중 15일간 비 내려...내달 2일까지 계속 폭염·열대야는 사라져...쌀쌀한 날씨 평년보다 빠를 듯

태풍 '오미스'는 빠져나갔지만 광주와 전남지역에 오락가락 비가 계속되고 있다. 8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광주와 전남지역에 비가 내린 기간만 15일에 달한다.

다음달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 이번 비는 '가을장마'이다. 여름철 장마는 지난달 19일로 끝이 났지만, 연일 이어지는 이번 비 또한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형성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장마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지역은 이날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렸다. 이날까지 광주와 전남지역은 8월 한달 간 15일 간 비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오락가락 내리는 비가 다음달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북태평양고기압과 기압골의 영향으로 다음달 2일까지 광주와 전남지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기상청은 26일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비가 주춤하겠지만, 27일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29일 잠시 소강상태를 보인 뒤 다음달 2일까지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있다.

비로 인해 늦 여름더위는 주춤하고 있다. 다만 비가 내리지 않는 날에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인 31도 안팎의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폭염과 열대야 등 여름철 무더위가 가신 것으로 분석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더위가 완전히 물러났다고는

볼 수 없다. 비가 내리는 날이 많아 기온이 높은 날이 많지 않다. 다만 9월에 접어들면 낮 최고 기온이 30도 미만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 가을은 쌀쌀한 날씨가 일찍 시작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3개월(9월-11월) 전망 해설서'에 따르면 오는 9월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은 날이 많겠으며, 중국에서 다가오는 건조한 공기의 영향으로 일교차가 크겠다. 강수량은 대기불안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다소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며, 강수량의 지역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10월은 상층 찬 공기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일찍 쌀쌀한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됐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봤다.

11월은 기온 변화 폭이 크겠으며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평년보다 추울 것으로 보이며 강수량도 적을 것으로 전망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왜 노래방은 안주나요”

광주시노래방협회 오늘 시청앞서 단체행동 재난지원금 지급·영업시간 연장 요구할 듯

광주지역 노래방 업주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 또다시 거리로 나선다.

특히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정부와 자치구의 방역지침을 모두 지켰음에도 '코로나19' 피해 지원대책'에서 제외되고 있어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25일 대한노래연습장협회중앙회 광주시지회에 따르면 26일 오후 2시 광주시청 앞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지난 19일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으나 광주시는 종전과 같은 방역지침을 재연장 발표해 노래방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더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 2월 8일 광주시 일자리경제실장이 노래방 업주들에게 우선지급하기로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한푼도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며 재난지원금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단체는 “광주시가 노래연습장에 대해 유흥업소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풀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과 함께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금지를 했는데, 유흥업소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반면 노래연습장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하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들은 추가로 영업제한 시간을 최소 밤 12까지 보장할 것도 요청할 것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동구 '건강도시상' 대상 쾌거

광주 동구가 '건강한 도시'로 인정을 받았다.

25일 동구에 따르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에서 주관하는 '2021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공모' 일반정책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건강도시상'은 102개 회원 도시의 건강도시 정책을 독려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수여하는 건강도시 부문 최고 권위의 상이다.

동구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치매친화적 환경조성' 최우수상, '소규모 사업장 건강 환경조성 프로젝트' 대상, '주민친화 건강정책 추진'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까지 4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동구는 중복지 수상 불가 원칙에 따라 훈격이 높은 일반정책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대

한국 건강도시 신규 공동정책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도 2위를 달성했다.

동구는 자체실시한 '동구민 건강요구도 조사' 결과를 통해 동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전 부서 신규 건강사업 발굴 및 기존 사업조정 등을 추진하고, '모든 정책에 건강을' 고려한 규정으로 건강도시 정책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분석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동구가 '모든 정책에 건강을(Health in All Policies: HIAP)'이라는 목표로 '건강도시 동구 지속가능 발전목표(D-SDGs)'의 내실화를 위해 전 부서가 칸막이 없는 협업을 펼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건강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건강 격차를 내리고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올리는 다양한 건강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코딩 자격증 따고, 취업 성공하자”

광주 남구, 강사 양성 교육생 모집

광주 남구가 4차 산업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해 취업 연계형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인 '청년 코딩강사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25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9월 2일부터 남구 청년 외곽에서 '청년 코딩강사 양성과정'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청년들에게 코딩 자격증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과 함께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모집 대상은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

상부터 45세 미만 청년으로, 선착순 10명을 모집한다. 교육생들은 오는 11월 11일까지 두달간 총 20차에 걸쳐 60시간 교육을 받는다.

오픈 소스 웹 애플리케이션인 앱 인벤터(App Inventor)와 인터페이스 사용법을 비롯해 화면 배치 레이아웃, 이미지 구동 및 구글 지도 연동 실습, 스마트폰 센서 및 블루투스 서버 연동 등을 학습할 예정이다.

교육 참가 신청서 접수는 남구청 8층 혁신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kong01@korea.kr), 전화(062-607-2680)로도 신청 가능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안심식당’ 서약운동 추진

광주 동구 음식점 모집

광주 동구는 코로나19시대 속 감염병에 취약한 식(食)문화 개선을 위해 '안심식당' 서약운동을 추진하고 참여 음식점을 모집한다.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안심식당'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다 위생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운동의 일환이다.

서약 운동은 ▲덜어 먹기 실천 ▲위생적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3대 이행과제를 음식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서약하고 실천할 것을 약속하는 운동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제1회 세월호 독서감상문 공모전

4·16재단 10월 26일까지 접수

4·16재단이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제1회 전국 4·16 독서감상문 공모전'을 연다.

25일 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제1회 전국 4·16 독서감상문 공모전' 접수를 받는다.

재단은 독서의 달인 9월을 맞아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다룬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재난 참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

독서감상문 대상 도서는 청소년과 일반 부문 공통으로 '눈먼 자들의 국가(김애란 외·문학동

네)', '그날이 우리의 창을 두드렸다(416세월호 참사 작가기록단·장비)', '재난, 그 이후(세리 펙 크·알에이치코리아)' 등 3권이다. 분량은 A4기준 청소년부 2~3매, 일반부 3~5매다.

공모전 참가를 원하는 국민은 대상 도서 3권 중 1권을 읽고 재단 홈페이지에 접속, 독서감상문 신청서 및 원고 양식을 다운 받아 jwg@416foundation.org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 발표는 오는 11월 25일 진행될 예정이며, 대상(1명)에게는 상금 30만 원과 행정안전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최우수상(1명)은 상금 25만 원과 경기도교육감상, 우수상(2명) 상금은 20만 원과 안산시장이 수여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창립 40주년 고객 감사 이벤트

대상

300만원 상당(1명)
금 10돈

1등

100만원 상당(1명)
건조기

2등

50만원 상당(2명)
청소기

3등

30만원 상당(3명)
무무밥솥

4등

10만원 상당(10명)
에어프라이어

5등

5만원 상당(20명)
온누리상품권

※본 경품은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은 본인부담이며 상기 조건은 추첨일까지 유지자에 한합니다.

경품행사기간 : 6월 21일 ~ 10월 31일

#경품추첨일 2021년 11월 10일 #경품추첨장소 대광금고 본점 3층 회의실

#경품응모권 지급 조건 ①저동이체 신규 및 변경(최소 5건 이상) ②출자금 신규 및 추가(최소 30만원)

#가입기본선들 고급 통장케이스 증정

MG대광새마을금고

서남지점(문화전당역) 062)227-1532

본점(계림오거리) 062)222-5851

지산지점(법원정문 앞) 062)222-1431